

범람하는 예능, 유사한 콘텐츠도 붓물 터진다



예능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선보이는 가운데 일주일에만 100여개의 가까운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콘텐츠의 절대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차별화된 콘텐츠는 오히려 더 찾아보기 힘든 모양이다. 최근에는 과거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과 소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

지상파·케이블 등 일주일에 100여개 쏟아져 유사 포맷 등 차별화 보이지 못해 아쉬움 남겨

세계견문록 아틀라스와 포맷이 거의 유사하고 출연자마저 동일하다. 백종원이 나와 자연스럽게 요리와 식재료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애정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첫 방송 후 2014년 방송된 '세계견문록 아틀라스'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네티즌 평가가 이어졌다. 대신 비판적이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작진 역시 시간적이나 청각적인 효과에 힘을 주고 있지만 분명 다른 방송국의 다른 제작진이 유사한 포맷을 선택하고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지난 4일 첫 방송한 KBS2 새 예능 '나를 깨는 아저씨'도 tvN '삼시세끼'와 유사성이 제기됐다. 안정환, 추성훈, 김준현, 샘 오취리, 최자가 나물을 캐서 식사를 준비하는 '나를 깨는 아저씨'는 '삼시세끼'를 연상시켰다. 출연진의 케미나 나물이라

스 클라분데 등이 도시농부로 활약하는 가운데 과거 KBS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편'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있다. 사실상 시청 채널의 확장과 다양한 플랫폼의 증가로 예능 콘텐츠가 급속하게 늘어나며 더 프로그램과 유사성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비단 현재 뿐만 아니라 몇년 사이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거나 특정 포맷을 그대로 가져온 예능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유사한 소재와 장르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거나 차별성을 보여준다면 시청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솔직히 이제 정말 소재 고갈이 심각하다. 외국도 가고 바다도 가고 섬으로 갔다. 이제 산으로 가는 예능도 있다.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크다. 그렇지만 분명 과거 프로그램과 비교되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다른 결을 가지면서 성공하는 콘텐츠는 존재한다. 그 밖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만 분명 맛집은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크릿 마더' 송윤아X김소연, 적·동지인지 모를 '예측불가 워맨스'



망이다. 김은영의 의도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때로는 공생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불안한 텐션을 이어가기 때문에, 찰나의 눈빛, 순간의 몸짓 등 작은 것 하나라도 감정이 느껴져야 할 만큼 섬세한 감성 연기가 필요한 상황. '시크릿 마더'를 위해 민반의 준비를 마친 송윤아와 김소연은

SBS 새 주말 특별기획 '시크릿 마더' (극본 황예진, 연출 박용순)로 첫 호흡을 맞추게 된 송윤아와 김소연의 시크릿한 만남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믿고 보는 연기력을 지닌 송윤아, 김소연의 조합은 캐스팅 발표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완성도 높은 티저 영상 속 두 사람의 압도적인 분위기는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씩 풀고 있는 김윤진(송윤아 분), 김은영(김소연 분)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시크릿 마더'에서 송윤아와 김소연은 1년 차 전업 맘 김윤진과 의문의 임신 보모 김은영(리사 김)으로 각각 분해, 적인지 동지인지 모를 우정과 위기를 오가며 극 전체에 긴장과 갈등을 불어넣는다. 특히, 오롯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함께하게 될 김윤진과 김은영의 예측불가 워맨스 전개는 '시크릿 마더'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캐릭터에 대해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3040 여배우들이 시청자에게 지지를 얻는 이유는 대본과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구현해내는 깊이 있는 연기력 때문일 것이다. '시크릿 마더' 역시 송윤아와 김소연을 주축으로 한 3040 여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여기에 두 여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김태우, 송재림의 열연이 더해져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안방극장 여풍(女風) 열기를 이어갈 송윤아·김소연 주연의 '시크릿 마더'는 월티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을 연출한 박용순 감독과 황예진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오는 12일 밤 8시 55분 첫 방송된다.

'픽미→나야나→내꺼야'... '프듀48' 3연타 홈런 날릴까?



'픽미', '나야나'에 이어 세 번째 '국민돌'이 부를 노리는 '내꺼야'다. 엠넷 '프로듀스101'의 시즌3인 '프로듀스48'이 베일을 벗는다. 8일, 엠넷에 따르면 '프로듀스48' 단체곡 제목은 '내꺼야'다. 엠넷 제작은 시즌1 때와 같은 'PICK ME'다. 시즌2 때 경연곡 '네버'와 워너원의 데뷔곡 '애니제틱'을 만든 작곡팀 중 플로우블로우의 곡이다. 이번 시즌3는 앞서 알려

진 대로 한·일 양국의 98명 소녀들로 진행됐다. 이미 지난달 22일 '내꺼야' 무대 녹화를 마쳤는데 화려한 EDM 사운드에 중독성 짙은 퍼포먼스, 풋풋하면서도 아름다운 98명 소녀들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다고. 이들의 무대는 오는 10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최초 공개된다. 시즌1 장근석, 시즌2 보아에 이어 이번 국민 프로듀서 대표는 이승기가 맡았다. 그와 함께 등장할 98인의 무대가 어떤 장관을 이룰지 기대를 모은다. '프로듀스 101'은 국민 프로듀서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 아

이오아아 워너원이라는 '국민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부른 '픽미'와 '나야 나'는 메가 히트곡으로 남녀노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제 '프로듀스48' 차례다. 한·일 양국의 소녀들이 단체로 완성한 '내꺼야' 무대와 음원이 더욱 공명해진다. 또 하나의 국민 중독성이 탄생할 전망이다. '픽미', '나야나'에 이어 3연타 홈런을 예고하고 있는 엠넷이다. 국민 프로듀서가 선택한 최초의 한·일 걸그룹이 점점 베일을 벗고 있다. 국민 프로듀서 대표 이승기를 중심으로 이홍기, 소유, 차타, 배운정, 최영준, 메이제이 리가 트레이너 군단을 이뤘다. 6월 첫 방송 예정

'챔피언' 가족 관객 잡았다, 좌석점유율 '어벤져스3'보다 앞서



마동석의 영화 '챔피언'이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의미있는 선전을 이뤄냈다. 영화 '챔피언' (감독 김용완) 배급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은 개봉 첫주 주말 누적 관객 수 70만 1450명을 동원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극장 관객을 잡은 마동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다. 이 영화는 보통 관객 수가 어린 이날보다 떨어지는 8일에 티켓팅 매출이 14.8% 상승했고, 좌석점유율은 42.2%로 흥행물종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 앞선 수치를 기록했다. 5일, 6일에는 영화 주인공들이 서울, 경기지역의 극장을 직접 찾았다. 김용완 감독, 마크 역의 마동석, 진기 역의 권율과 쫄쫄이네 최승훈, 옥예린이 참석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용완 감독은 "따뜻한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무대인사의 포문을 열었다. 마동석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사진 많이 찍으셔서 소장하지 말고 SNS에 올려달라"며 센스 있게 영화를 홍보했다. 권율은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좋은 따뜻한 가족 영화다. 여러분들을 보니 벅차 오른다.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역 옥예린은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라베리보", 최승훈은 "히루라도 빨리 보시라고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라고 말해 관객들이 엄마 아빠 미소를 짓게 했다. 영화 '챔피언'은 국내 최초 팔색연 영화로 심장보다 팔색이 먼저 뛰는 타고난 팔색을 선수 마크가 마음보다 잔머리가 먼저 도는 남자 진기와 손잡기 두 아이와 함께 등장한 동생 수진(한예린 분)의 도움을 받아 빛나는 챔피언을 향한 뒤집기 환판을 그린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음력 3월 24일)

| | | |
|--|---|--|
| <p>▶ 쥐띠 1, 4, 7월생 정신적인 피로 탓에 건강을 잃을까 염려된다. 일찍 귀가해 모처럼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라. 사, 췌, 비 성씨는 과욕을 버리고 분수대로 대처하면 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루겠다.</p> | <p>▶ 용띠 6, 9, 12월생 애정은 결혼 상대가 아니라면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훗날 후회하지 않는다.</p> | <p>▶ 닭띠 대인관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쉽게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일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나 곧 새로운 운이 열린다. 2, 5, 8월생 비, 오, 췌 성씨 애정 문제로 순간적인 실수가 예상되니 언행을 조심하라.</p> |
| <p>▶ 돼지띠 마음의 방향은 그만두고 상대가 생각해주는 만큼 믿고 따라라. 그래야 자신의 안정을 찾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1, 7, 12월생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작은 걱정이 마음의 병을 초래한다.</p> | <p>▶ 돼지띠 현재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장차 큰 이익을 위해 차분히 내실을 기하면 대성한다. 자만심만 버리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3, 7, 11월생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라. 비, 췌, 증 성씨 나를 믿고 따르는 마음 그 무엇보다 크다.</p> | <p>▶ 양띠 6, 9, 12월생 주위 영향으로 변동수가 있으나, 남이 돕는다 해도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 서서히 운이 열리는 입구에 다다랐으니 열정과 성의를 더해 쌓아 올리라. 6, 9, 12월생 자식 걱정이 있어도 복잡한 심경을 눈에 띄게 표현하지 말라.</p> |
| <p>▶ 호랑이띠 어둠이 걷히고 태양이 솟아오르니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2, 3, 9월생 지난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다. 동남쪽 사람과 손잡으면 더욱 쉽게 풀린다. 사, 췌, 오 성씨 서로 눈치는 그만 살피고, 사랑 표현을 확실하게 하며 적극성을 보이라.</p> | <p>▶ 양띠 3, 4, 12월생 지난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라. 현재는 불황이라 마음이 답답하겠으나 인내가 나를 살릴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9, 12월생 애정, 자식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라.</p> | <p>▶ 돼지띠 고난을 헤쳐온 끈기로 매사 임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7, 9, 10월생 과거 고난을 거울삼아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웃는다. 사, 췌, 비 성씨 북, 서쪽에 귀인이 있다. 최선을 다하라.</p> |
| <p>▶ 토끼띠 한 가지 일이 풀리면 열 가지 일이 다 풀리는 운이다. 다만 자만심을 버려라. 2, 8, 11월생 금전에 지출이 예상된다. 7, 9, 사, 오 성씨는 삼각관계로 애정에 어려움이 있겠으니 한 사람을 택해 만족하면 멋진 삶으로 이어진다.</p> | <p>▶ 양띠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만족하면서 임하면 매사 순조롭다. 7, 비, 증 성씨 마음고생이 끝없이 펼쳐져 혼자 애간장 타는 격이다. 6, 8, 11월생 쥐, 닭, 소띠와 협력하면 술을 풀린다. 북쪽이 길하다.</p> | <p>▶ 돼지띠 7, 9, 비 성씨 내 것은 내가 챙기자. 조금 얻었다고 방심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절약을 필수다. 4, 9, 10월생 언제까지나 젊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설 곳, 안주할 곳이 어디인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라.</p> |